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3.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獨 검찰, 열차 승객 흉기 공격 용의자 ISIS 사상 추종 발표
 - 3.21 獨 검찰은 '21.11월 함부르크行 고속열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부상케 한 용의자가 ISIS 추종자임은 확인했으나, 同 테러 단체로부터 직접적인 범행 교사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발표
- 英 시민단체, 테러 희생자 지원 대책 촉구
 - 3.22 英 시민단체 'Survivors Against Terror(SAT,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존·사별한 사람들의 단체)'는 「파텔」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 대테러 전략 핵심 요소로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촉구
 - * (주요 내용) △ 즉각적 재정·심리적 지원 △ 보상 기금에 대한 신속한 접근 △ 법적 지원 △ 테러 생존자들을 위한 국가 기념일 제정 등

미주

- 美, '이란 혁명수비대'(IRGC) 테러단체 지정 해제 검토
 - 3.17 美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(Axios, '16년 설립)는 美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진행 중인 美-이란 핵 합의(JCPOA) 복원을 위해 IRGC*를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
 - * 「트럼프」前 대통령 당시 국제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테러단체로 지정('19.4월)
- 캐나다, 코로나19 첫해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3배 증가
 - 3.19 캐나다 통계청은 지난 '20년 전국 경찰에 신고된 증오범죄 가운데 아시아인 겨냥 사건은 269건으로 前年 67건 대비 301% 증가했으며, 인종 관련 건수는 전체의 62%를 차지한다고 발표
 - * '20년 증오범죄는 2,669건으로 '09년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해를 기록

아 · 태평양

- 탈레반, '외국 콘텐츠 방영 금지' 등 언론 탄압 지속
 - 3.19 현지 언론은 탈레반이 2개월 前 아프간 방송사들에게 외국 콘텐츠 방영 금지를 강요하며 준수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4개사 관계자를 체포·구금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
- 日 음진리교 잔당, 외로운 2030세대 대상 勢 확대
 - 3.21 日 도쿄신문은 지난 '95년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*를 자행했던 일본의 신흥종교집단 음진리교 계승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포섭활동을 강화 중이라고 보도
 - * '95.3.20 음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로 13명 사망·6천여명 부상
 - ** 日公安조사청은 음진리교 계승단체에 지난해 80여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발표
- 법원, 이슬람 테러단체 현금 우즈벡人 항소 기각
 - 3.18 대구지법은 '20.4~5월 대구 이슬람사원에서 만난 국제테러단체 '알 누스라 전선'* 관계자에게 45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45만원을 선고받은 우즈벡人(28세)의 항소를 기각
 - * 시리아 북부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(UN·美 등에서 테러단체 지정)

중 동

- 이스라엘, 美의 '이란 혁명수비대'(IRGC) '테러단체 지정 해제' 반대
 - 3.18 「베네트」 이스라엘 총리는 '미국의 IRGC 테러조직 지정 철회 가능성'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, 同 단체는 "미국인을 비롯해 수천 명을 살해한 테러그룹"이라며 강력 반대입장 표명
 - * 언론은 美의 IRGC 테러단체 지정 해제 목적은 이란 핵합의(JCPOA) 복원이라고 평가
- 후티 叛軍, 사우디 석유시설 등 드론 공격
 - 3.20 아랍 동맹군은 후티 叛軍이 사우디 서남부 지잔市에 위치한 석유시설을 비롯해 LNG 저장시설·발전소·해수 담수화 시설을 드론·무인선박·탄도미사일 등으로 공격했으며,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발표

모잠비크, 천연가스 생산지역 연쇄 폭탄·총격 테러

- '21.3.25 오후 모잠비크 북부 팔마지역 천연가스 생산지대에서 테러 단체 ASWJ* 조직원 200여명이 폭탄·총격테러를 자행 후, 해당 지역을 4일간 장악하며 외국인 포함 최소 50명 이상의 사망자 초래
 - * ASWJ(Ahlu Sunna Waljama) :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(살라피즘) 사상을 반대하는 무장단체로 2015년 모잠비크에서 결성되어, 최근 탄자니아 등지로 영향력 확대 中
- 사건 당일 ASWJ 조직원들은 우선 매복 공격을 통해 가스시설 경비 보안군을 무력화 後, 외부와의 연락수단 차단을 위해 통신 시설을 파괴하는 등 사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치밀하게 공격 감행
 - * 테러조직원들은 경비병력 제거 이후, 팔마지역 중심지로 진입하여 가스시설, 경찰서, 가정집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탄·총격 테러를 가하였으며, 사상자 다수 초래
- 사건 직후, ISIS는 이번 사건을 자신들의 아프리카 지부인 ISCAP(ISIS 중앙아프리카 지부)이 수행했다고 발표한바, 이를 통해 그간 정체를 숨기고 있던 ASWJ 역시 또 다른 하부조직 중 하나임을 간접시인
 - * '19.6월 ISCAP의 ISIS 대상 총성서약 당시 ASWJ의 동조가 없었기 때문에, ISIS-ASWJ 연계 여부에 대한 의구심만 있었을 뿐 그간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했던 상황
 - ** 결국, '21.3월 UN은 이번 사태로 ASWJ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며, 'ISIS-모잠비크'라고 명명

< ASWJ(Ahlu Sunna Waljama) >

- **(결성)** 수니파의 이슬람 원리주의(살라피즘)를 반대하며, 온건한 수니파 종교사상을 기반으로 투쟁할 목적으로 '15년 결성('21.3월 UN 테러단체 지정)
- **(핵심인물)** 아부 야시르 핫산('21.3월 UN 국제테러리스트 지정)
- **(연계세력)** ISIS(ISCAP), 소말리아 알샤바브 등
- **(활동지역)** 모잠비크 북부 카보 델가도주(무슬림 밀집지역), 탄자니아 일부 지역 등
- **(활동수법)** 對정부軍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주민 학살
- **(참고사항)** '19.6월 ISIS가 선전매체를 통해 ASWJ를 '이슬람국가의 전사들'이라고 명명하며 양자간의 상관관계는 최초 밝혀졌으나, ASWJ-ISCAP간의 위계관계는 당시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음. '21.3월 '모잠비크 팔마지역 천연가스 생산지역 테러공격' 이후 ISIS의 발표를 통해 ASWJ가 ISCAP 산하의 조직으로 편입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

